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3.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교회 설립 98주년을 맞이하여 청과 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두고 세우신 모든 섭리적 안배가 놀랍기만 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 인정해주시는 주님,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움 뿐이라 해도, 부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쁜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비주의의 물결에 떠밀리면서 영혼의 목마름에 시달리는 가여운 이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륜이 깊어갈수록 품이 더욱 그윽해지는 느티나무처럼, 우리 교회도 품이 넓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범이 되시 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사53:5	인도자
----------------	-------------	-----

♠ 교 독 문	1. 시편 1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이명희 집사	II. 김재흥 목사
------------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246. 내 주의 나라와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벧전3:15	인도자
------------	-----------------	-----

II. 고후5:17-21	이순정 권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소망에 관한 이유	이성운전도사
-----------	--------------------	--------

II. 그리스도의 사절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395. 너 시험을 당해 다함께
 헌금봉헌 특송: 참빛 여성 찬양대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루의 바쁜 일과 중에도 평정과 침착함을 잃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연약한 풀잎이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듯이 우리 영혼도 주님의 속삭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역경 속에서도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끈질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9)	5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김훈동 권사

5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정길	오진훈	최숙화	박효선	문인옥
	헌금위원	윤석철	이호원	김훈동	구명자	이순정	강순배

주일은 어김없이 다가오는데

벌써 십 여 차례나 설교를 했는데 나는 내가 지금껏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문은 달랐지만 그것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다른 구실이었을 뿐이다. 내가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해서 연구해온 그 알량한 생각들은 벌써 바닥이 났다. 이제 어떻게 한다지? 물론 세월이 가면 삶과 경험이 내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줄 것이고, 성경에서 내가 놓치곤 했던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젊은 설교자는 그가 진짜 설교를 하기 전에 우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속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일 설교가 끔찍한 부담이 될 판이다.

당신은 위대한 메시지로 충만한 채 회중 앞에서야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매 주일마다 별 것도 아닌 새로운 메시지를 찾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만일 내가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메시지들은 매주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경쟁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나마 사람들에게 내놓을만한 생각을 찾아내기 위해 고투하고 있다. 새로운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이 내게는 고통이다. 과연 내가 매 주마다 거름 없이 빛과 영감을 나르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도통 모르겠다.

당신은 어김없이 다가오는 주일과 마음의 변덕과 그 종작없음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 예언자는 오직 영감을 받았을 때만 말한다. 교회의 설교자는 영감을 받든 못 받든 말해야 한다. 나는 이 높은 자리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도 통 모르겠다. (1915)

사례(謝禮)

오늘 연로하신 G 부인을 심방 했고, 성찬식을 베풀었다. 내가 병상에 계신 분에게 베푼 최초의 성찬식이었다. 나는 이 예식과 연관된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가톨릭의 임중

도유(塗油) 의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의식이 정직한 통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표현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미신보다는 나은 데니 말이다. 그러나 전례를 집행하는 목사로서 나아가는 어려움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든 일종의 미신이든 그것은 전적으로 수용자에게 달려 있다.

신학교 시절에 나를 사로잡았던 성례전에 대한 반감을 이제는 어느 정도 버렸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로 부모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아이를 제단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요소가 있다. 문제는 예전서(禮典書)가 그런 것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는 내가 이해한 성찬식의 의미 전체를 기도에 담아야만 한다. 어쩌면 내가 예전 양식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내가 회중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G 부인께서 오늘 오후에 내게 일종의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성찬식이 끝나자 부인은 베개 밑을 더듬거리더니 5달러짜리 지폐를 꺼냈다. 그것은 나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나는 개신교에도 이런 사례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여러 교파에서 회중들이 세례에 대한 사례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내가 사례를 거절하자 G 부인은 조금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어쩌면 내가 동정심 때문에 거절하는 줄로 이해한지도 모르겠다. G 부인은 자신은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쩌면 어떤 형태의 사례든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후에 일을 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혼식의 경우는 경우가 좀 다르다. 결혼식 집행자들은 사례비를 받는다. 신랑이 슬그머니 손에 돈을 쥐어줄 때 그것을 철회하며 거절한다면 불만만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결혼식은 성례전이 아니지 않은가?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결혼식은 정말 성례전이 아니던가? (1916)

(라인홀드 니버, <<어느 길들여진 냉소주의자의 노트에서>>의 일부를 옮김)

■ 마/음/으/로/워/는/글

풀꽃

하나님의 귀여운
아들딸들이
별을 손에 쥐고 있다.
반짝반짝!
(이창건)

동무끼리

동무끼리
얼굴을 마주 보아라.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입을 꼭 다물고
웃지 않기 내길 하여도,

코가 벌름벌름
귀가 쫑긋쫑긋

어느새 동무끼리
입이 열린다.
(엄기원)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정현주 안종일 구명자 오진훈 노순옥 이광영 형인순 김근종
 정옥영 이봉옥 박홍엽 김지윤 김지호 김훈동 김금순 왕성환 강순배
 조병무 송양진 김성한 조영순 배연희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윤성종 김윤정 김남중 오복순 이경남 홍복선 권미정
 정미경

감사헌금:

이정은 김필순 이한림 김명희 고정철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교 회	박 영 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서 정 순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임 정 자	정 복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김 명 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이 인 섭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김 정 속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교 회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속	강 순 배	김 금 순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한 선 희	최 종 원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속	박 찬 정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속	정 옥 영	교 회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해 권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야 외	박 미 영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임 창 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교회설립주일** : 오늘은 교회 설립 98주년 감사예배(1908년 5월 1일 설립)로 드립니다. 긴 연륜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2. **작은 사진 전시회** : 영상 동호회 회원들의 사진을 청년부실에 예쁘게 전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과 격려 바랍니다.
3.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4. **부장회의** : 교회학교 교육부장회의가 오후 1시 10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5. **기획위원회** :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친 후 담임 목사실에서 모입니다.
6. **기도의 밤** : 5월 10일(수) 오후 7시 30분에 모입니다. 영적 쇄신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7. **심방** : 가정별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9) - 가버나움속, 수(10) - 베다니속
8. **아름다운 원로** :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 **웨슬리 집회** : 중구용산지방이 주최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가 21일 주일 저녁부터 24일 수요일 저녁 집회까지 이태원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저녁 집회 안내를 맡았습니다.
10. **신앙실천** :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과 존경과 이해와 순종,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가정의 주춧돌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 헌화 : 이동천 집사 (이숙 권사님 4주기 추모)

* 지난 주 헌화 : 김창원 집사 정지은 성도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